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韠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2월 21일 밤 나그네 몇 사람과 새벽까지 술 마셨는데 이날 새벽이 입춘이었다.

十二月二十一日夜, 與客數人飮至曉, 是曉立春

막걸리가 나그네 발을 붙드니 濁酒還留客
푸른 등불 새벽까지 앉아 있었지. 靑燈坐及晨
찬 산에선 여태도 눈 내리는데 山寒猶釅雪
새 노래는 봄이 옴을 이미 아는 듯. 禽語已知春
전쟁 일은 언제나 초초하여도 草草干戈事
강해의 나그네는 유유하도다. 悠悠江海人
하늘 가 매화나무 버드나무는 天邊梅柳樹
또 한 번 면모를 일신했구나. 又作一番新

객중에 상원일(上元日)을 맞아 회포를 쓰다

客中上元書懷

초초한 남쪽 고을 나그네 되어 草草南州客
근심 속에 한 해가 또 바뀌었네. 愁邊歲又新
옅은 구름 달빛을 능히 가리고 微雲能掩月
보슬비는 봄과는 상관이 없네. 小雨不關春
난세에다 다시금 상원(上元)을 맞아 亂世還今夕
궁한 길에 다만 홀로 이 몸뿐일세. 窮途秖此身
평생에 목상좌(木上座) 지팡이만이 平生木上座
흰 머리에 도리어 친하여졌네. 頭白轉相親

수필

南川 권두문군수의 소실 康召史

권 태 하(작가, 검교공파 33세)

춥고 긴 겨울이 지나가고 매화꽃을 선두로 개나리와 산수유, 진달래와 벚꽃이 만발하는 봄이 오면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새봄을 맞이하지만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은 환절기인 봄이 두렵고, 혹시나 하던 것이 역시 나가 되어 봄철에는 곤욕을 치른다.

밤낮의 일교차 때문에 걸핏하면 감기가 걸리고, 황사먼지바람으로 가래가 끓기 시작하면 숨이 차서 걸음 걷기조차도 거북스럽다.

특히 작년에 담배를 끊으면서 면역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감기가 세균성 폐렴으로 옮겨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부터는 혈액 속에 산소농도가 부족하다고 하여 요즘은 산소발생기를 집안에 설치하고 호스를 통해 콧구멍으로 산소를 흡입하며 산다.

그나마 다행히 하루 3시간 정도는 산소발생기를 빼고서도 호흡을 할 수 있으니 그 시간을 이용하여 잠시 바깥나들이를 하거나 걷는 운동을 하곤 한다.

4방8방으로 쏘다니던 것을 생각하면 몸이 갑갑하기 짝이 없지만 주제를 알고 체념을 해버리니 그런대로 견디겠는데 작년과 금년, 시제 때며 한식에 조상님들 산소에 성묘를 못해 마음이 무겁다.

또 하나 몸이 따르지 못해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데 강원도 평창 泉洞里(샘골마을)를 가기로 한 것이 이제는 건강 때문에 다녀올 수 없다는 점이다.

내가 다음 불로그에, 내 12대조이신 남천 권두문군수의 임진왜란 때의 난중일기인 호구록(虎口錄)을 연재했더니 어느 날 강원도 평창에 사시는 독자 한 분이 소식을 보내왔는데 임진왜란 때 평창군수였던 권두문군수께서 왜군과 전투를 벌인 현장인, 응암굴이 있는 동네인 샘골(호구록에는 井洞, 현재는 泉洞里) 주민들이 매년 초복날 권두문군수의 부실인 강소사(姜召史) 진혼제를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얘기인즉슨 샘골마을 이장인 이해영씨를 비롯해 천동리 주민들이 매년 초복 날을 제사일로 잡아 집집마다 음식정성을 모아 제수를 마련하여 평창의 각급 기관장과 단체장을 초청, 격전장인 관굴(官窟)과 민굴(民窟)이 바라보이는 구만리 강변에 제단을 모시고 임란중에 권두문군수의 지시에 따라 왜군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지사함 장군과 휘하 병사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한 권두문군수와 함께 왜군에 포로가 되어 왜병이 몸을 만지려고 하자 천인절벽에서 뛰어내려 자결하여 그 산 이름을 절개산이라 이름 짓게 한 권두문군수의 소실 강소사 진혼제를 지낸다는 것이었다.

후손으로서 내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못했다. 물론 강원도 평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라서 참석을 못한 자리이긴 하지만 내 조상이신 강소사 진혼제를 다른 사람들이 드려주었다는 것이 마치 내 조상 묘를 남이 벌초를 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 때 서울 강서 종친회장을 맡으셨던 남천지파 대종손인 내 숙부님, 宗자 一자님과, 호구록을 한글로 번역하신 남천지파 큰 선비이신 寧자植자(호구록을 한글본으로 펴낸 전제9지구의보조합장 五昌族 부친)과 함께 10월 6일부터 3일간 평창에서 열리는 평창 노성문화제에 참석하여 오프닝 행사로 드리는 노성산성의 노성제에 숙부와 영식 어르신이 권두문군수의 유족을 대표하여 잔을 올렸을 때 내가 동행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제사는 권두문군수가 인근 타지역의 군수처럼 왜장 모리 요시나리에게 항복하지 않고 평창군의 백성들과 더불어 노성산성에 진을 치고 왜병 4천명과 혈전을 치르다가 목숨을 바친 분들의 진혼제를 드리는 것이었고, 천동리 이해영 이장이 응암굴이 바라보이는 구만리 강변에서 올리는 진혼제는 응암굴 전투에서 돌아가신 지사함 장군과 병사들 그리고 조선여인의 정절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천인절벽에서 투신자살을 한 강소사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로 구분 되는 것이었다.

나는 천동리 이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내년 진혼제 때에는 나도 돼지 한 마리 값이라도 추렴을 해서 한잔 술을 올리고 싶다고 말씀드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결국 병이 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운신을 못할 정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올해는 몸이 좋아져서 반드시 참배하여 잔을 올려야 하는 데 하는 생각을 하니 복날이 올라면 아직 멀었는데도 벌써부터 강소사 진혼제 날이 기다려진다. 봄아 어서 가거라.

우강 권이혁장관 에세이

의료윤리

19세기 프랑스의 의학자 클로드 베르나르(Claude Bernad, 1813~78)는 "내과의는 환자에 대하여 매일 치료실험을 실시하고, 외과의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생체해부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오늘날의 의학이나 의료현장에서도 진실이라고 믿어진다.

의학이 인체실험 없이 발전할 수는 없는 일이며, 새로운 치료법의 대부분은 인체실험에서 시작된다. 신약의 경우 동물실험만으로 효과를 측정하거나 부작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일이며, 반드시 임상실험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인체실험을 덮어놓고 '악(惡)'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 베르나르는 실험의학과 일반생리학의 창시자이다. 지방(脂肪) 소화(消化)에 있어서 췌액(膵液, 이자액)의 기능, 교감신경의 맥관운동(脈管運動)에 대한 의의를 관한 연구 등 많은 연구 실적이 있다. 잘 알려진 것으로는 간의 생리작용에 관한 연구로서. 간의 당(糖) 산출 기능을 밝혔다. 또한 남아메리카에서 산출되는 독물인 큐라레(curare)를 써서 근육의 흥분작용을 연구하였다. 저서인 <실험의학서설(實驗醫學序說)>(1865)은 실험생물학의 방법론에 관한 것으로 사상계에 까지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의료윤리는 이 기본적 현실 원칙을 소홀히 한 채 '윤리'라는 것을 의사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해석하고 '인간성'이나 '생명존중주의'와 같은 일반적 도덕기준과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다. 이와같이 중대한 문제를 단순히 일반도덕의 문제 차원에서 다루는 데는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역사상 일본군 제731부대의 인체실험과 독일의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실시된 인체실험이 유명한데, 이 양대 사건을 단순히 일반 도덕의 결함으로 돌릴 수 있을까? 전자는 세균전쟁(생물전)을 위한 것이고, 후자는 인종주의에 유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양자 사이에는 상사점이 많다. 우선 다같이 피험자(被驗者)의 수가 많다는 점이다. 독일은 수없이 많은 유태인을, 일본은 수없이 많은 중국인·조선인·몽골인·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했다. 둘째로는 그들이 단순히 상부의 명령 때문에 인체실험을 감행했다고만 하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전후에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실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인체실험의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들의 '전쟁 ·의학 범죄'는 '악의 상징'·'악마의 짓'·'반윤리의 전형'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일부에서는 그들이 의학발전에 기여했다고 지적하는 학자도 있다. 만일 후자의 지적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러한 사건의 재발 가능성도 있을 것이며 새로움 '의료윤리'를 개발하는 데도 크게 지장을 주게 된다.

한편 인체실험과 의학 사이의 윤리 문제는 지극히 복잡하다. 의료윤리나 생명윤리에 관해서는 근년의 첨단 의료기술이나 유전자 해독 등이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고, 많은 제안이 제시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을 생각해 보면 이미 고대의학 시절부터 의료윤리가 큰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자치통감 산책'

〈도서출판 삼화 발행, 총 432쪽〉

저자 권 중 달
중앙대명예교수

◆ 자치통감이란?

≪자치통감≫은 중국 송나라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쓴 편년체 역사서이다. ≪자치통감≫은 전국시대인 주(周) 위열왕 23년(기원전 403년)부터 시작하여 진(秦)·한(漢)시대를 거쳐서 삼국시대와 위(魏)·진(晉) 남북조를 아우르며, 이를 통일한 수(隋)·당(唐)시대, 그리고 다시 분열의 시기로 들어간 오대십국의 후주(後周) 현덕 6년(959년)까지 1,362년간의 역사를 다룬 통사(通史)이다.

◆ 책 속에는....

·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처럼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차이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춘추시대에는 그래도 예(禮)와 도(道)는 회복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졌다면 전국시대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지켜오던 가치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아주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 ___p14

· 무릇 진나라 왕이 위엄으로 나를 대했을 때에도 나 인상여는 그를 꾸짖고 그의 많은 신하를 욕보였는데, 내가 비록 힘이 없다고 하나 겨우 염 장군을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생각하건대 강한 진나라가 감히 우리 조나라를 어쩌지 못하는 것은 우리 두 사람, 염 장군과 나 인상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마리의 호랑이가 서로 다투게 되면 둘 다 살지 못한다. 나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 나라의 급한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사로이 원수를 갚는 일은 다음에 하겠다. ___p44

· 비록 정치적인 목적이 숨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베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산 것이다. 누구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주군이라면 따르지 않을 백성이 없을 터. 인재를 알아보는 눈썰미가 유방이 천하를 갖는 첫걸음이었다면 인재들의 건의를 받아들일 줄 아는 지도자의 아량이 성공을 완성시킨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___p83

· 역사에 가정법은 없다지만 동방삭이 직언을 하지 않았으면 어떠했을까?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직언을 한다 해도 권력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바른 말을 받아들인 무제는 역시 참다운 황제다웠다. 죽음을 무릅쓰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과 귀에 거슬린 말을 받아들이는 권력자가 어우러지는 시대, 정녕 그런 시대는 다시없는 것인가! ___p133

· 예나 지금이나 좋은 정부가 다스리면 국민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들이 고생하게 되어 있다. 필리핀에 막사이사이(Ramon Magsaysay)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우리는 필리핀을 아주 잘 사는 나라로 선망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백성들은 좋은 정부인지 나쁜 정부인지 어려운 문자로 수식된 주의나 사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살기가 좋아졌는지 아닌지만을 가지고 실생활 속에서 엄연년의 어머니처럼 직감으로 알 뿐이다. ___p170

· 이렇게 알맹이는 없고 겉만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백성과 이웃을 속이려는 정책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이었지 세상을 속이거나 역사를 속이지는 못한다. 속지 않는 백성들은 반란이라는 수단을 강구했고, 왕망은 그렇게 그 끝을 맞았다. 하기야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 국민들을 속이려는 지도자는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 요즘도 대중은 어리석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당하게 구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사람이 간혹 일시적으로 성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때가 무르익으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 역시 역사의 위대함이다. 왕망이 이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황제가 아니라 허황된 꿈을 좇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말이다. ___p219

〈다음 호에 계속〉

隨 想

길(路)

毛村 權五福(본지 편집위원)

인생에는 언제나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
심을 것인가. 화해할 것인가.
그때마다 망서리는 나에게
진리는 하나였습니다.
"7천만 동포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다.

이 달 의 詩

고대산 태극기

청하 권 대 욱

한 마리 늙은 낙타가
서쪽 능선을 또 걸어가고 있다
이쯤에서 망설이는 키 작은 돌탑 지나
망향 염원이 켜켜이 쌓인 하늘을 걷고 있다
제 고향 불러 모질게 불러
목이 쉰 철마는 울지 못하고
여태 만나지 못한 고향 아이가
철조망에 얹은 절망은 빨갛게 녹슬어간다
허전해질 시간의 껍데기 속
땅으로 회귀하지 못하는
피맺힌 붉은 역사가 절규하는 산에서
제 육신을 햇살에 덥히는 이 능선에
한 다발 들꽃 서럽게 필 날은
뉘 손잡고 다시 올까.

신경통·관절염·디스크 상담
※ 특히 족친제위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권 영 혁 사장

▣ 안 동 권 씨 중 앙 종 친 회 부 회 장
▣ 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 학술 부위원장
▣ 백 송 한 약 방 (白 松 韓 藥 房) 대 표

權 寧 赫
(서천, 추밀공파 34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77-1 (경동한약상가 5번출구, 기업은행 1층)
전화 : 02-963-5951, 팩스 : 02-963-5951
핸드폰 : 016-273-9464

20년전통의 농장직매
고송농원
♣ 도 · 소매 ♣ 경조화환 ♣ 조경공사
♣ 꽃바구니 ♣ 각종화환 ♣ 관 엽
서 울 山 岳 會 權 赫 九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183-2 고송농원 http://flowertown.kr
TEL (02)5752-5555 FAX (02)5750-656 H.P 019-240-4242